Lore Protocol Session 1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2015년 핫한 이슈로 블록체인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혁신과 성정을 촉진시킬 기술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된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토큰,인센티브) 없는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시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재에서 생긴 인식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엄밀한 의미의 블록체인은 아니며, 허가된 멤버들 간의 공유 DB이다. 비트코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짚어보며 알아가야한다. 비트코인의 탈중앙성향은 자유주의자(리버럴), 무정부주의자(아나키즘), 기술 전문가, 사업가들에게 크리티컬하게 어필되었으며, 시세의 상승 구간을 지나는 동안 조롱당하고 폄하되고, 생명이 다했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지대를 추구하는 중개인이 없어짐에 따라 더 개방적이며 사람들이 자신 소유의 자산, 그들의 창의성,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받게되는 P2P 경제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

## 서문 ‘디지털 시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아흐마디라는 소녀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필름아넥스가 비트코인을 지불시스템으로 선정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갑을 생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사례를 보여준다.

비트코인의 과도한 변동성, 버블, 실크로드에서의 마약밀매, 마운트곡스 파산 과 같은 자극적인 이슈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은행업과 상업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도 현대의 통합된 디지털 글로벌 경제로 편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지금의 화폐경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의 화폐혁신이 뿌리이다. 존재하는 부채를 은행 내부장부에 관리함으로써 은행들은 자연스레 중앙집권화 된 신용시스템을 창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개자는 제삼자 거래에 신용을 담보하여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은행이 통화량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제삼자들의 이권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이 중앙화 된 신용의 붕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암호화폐가 왜 혁신적인가?

“낯선 이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 인프라는 제공하되 중개인이 필요없게 해준다”는 것이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중개인과 수수료를 제거하고 사업 수행비를 절감하며, 외부의 압력에 자유롭다.

비트코인의 첫번쨰 개념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여러 노드가 상호검증하는 가치전달의 운영체제 =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예수 – 베리실버트, 니콜라서 케리,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 찰리 슈럼, 로저버

“사토시 나카모토” 그가 인정한 수석개발자 개빈 앤더슨

죽음의 수용 5단계

무시 – 회의 – 호기심 – 결정화 – 수용

닷컴 버블. 주택 버블. 리먼 브라더스 파산. 키프로스 사태.

금융위기와 새로운 공유경제 “공유경제”